

buddhanews.com

# 태산 같은 집을 짊어지고 어찌 편안히 살 수 있겠는가

## 25면에서 계속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점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는 더, 이 몸이라는 집 속에 내 주인을 세우지 않고는 살기가 참 힘이 들 것입니다. 시대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뺏어 먹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지금 내 집에 내 정신을 세우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가길 없는 거죠. 팩백 나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겁때기만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 가서는 허무한 생각이 말할 수 없이 남 모르는 눈물을 흘려야만 하죠. 내놓고 눈물을 흘릴 수도 없죠. 또,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말합니다.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말합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란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공부라고 할 것도 없죠. 나무들이 본래 뿌리가 있는 것을 보시죠? 우리도 본래 뿌리가 있던 말입니다. 본래 자기 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뿌리가 없는 양 그저 먼 산 바라보고 기도나 하고, '잘되게 해주시오.' 하고 빌죠. 안되는 거 되는 거를 다 몰아다 놓고는 기도하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뿌린 거는 자기가 거둬야 하는 건데. 이게 정신계로부터 물질계로 자꾸자꾸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가다가다 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말을 하는 것은 내 육신이 이렇게 허덕허덕하고 살아나가더라도, 내 주장자에서 들이내게 이끌어 가도록 맡겨 놓고 자기네 몸을 저 물이 흘러가듯이 보라 이겁니다. 자기네 몸이 지금 실 새 없이 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고정법이 없이 돌아간다고요. 자고 깨고 살고 하는 게 그냥 물같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그 물이 온전한가? 거기에는 흙물도 들어갈 수 있고, 파도도 칠 수 있고 별의별 문제가 다 생깁니다. 육신이 너무 많으면 물이 너무 많아서 넘치고 그래서 물벼락이 맞고, 이렇게 야단칠 하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장마도 무서운 장마가 오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을 잘해서 넘치지 않고 줄지도 않게 그냥 평등공평으로, 자기 몸뚱이가 어떻게 고생을 하든, 잘하든 못하든 다 놓고 지켜 보면서 그냥 유유하게 여유하게 가시란 말이죠. 내 몸뚱이를 붙들고 아무리 아웅다웅대도 집이 망그러질 뿐이지 지켜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 친척이 그렇다 하더라도 관해서 그냥 팽개쳐 버리고 놔, 그쪽도 들이 아닌 까닭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구, 죽게 됐는데, 이거 살아야 할 텐데...' 하고 아등바등하던 말입니다.

가깝게 있던 멀게 있던 마찬가지로. 진짜 믿는 것은 탁 팽개쳐서 놓는 거죠. 아등바등하면 믿는 게 아니죠. 오히려 '죽어든지 살리든지 너 알아서 해라.' 하고 맡겨 놓아야 일이 풀리죠. 이게 죽고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어떠한 거든지, 작든지 크든지 '너 알아서 해!' 하고 딱 맡겨 놓으면 알아서 하지만, 딱 맡겨 놓질 않고 찻다 뺏었다 찻다 뺏었다 하면 그런 영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스님네들 세계도 그렇고 여러분의 세계도 그래요. 누구 하나에게 딱 책임지워서 맡겼으면 그냥 딱 맡겨야 할 텐데, 이거는 의심을 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잘못하는 게 많죠. 그리고 의욕도 생기지 않고요. 책임감이 확고하게 들지도 않고요. 그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내가 예전에 한번 했죠. 회사를 하는데 회사에서 도둑을 자꾸 맞아요. 이걸 실제로 있던 얘기로요. 도둑을 자꾸 맞으니가 겁내는 일고 있는데 물증이 있어야 어떻게 하죠. 물증은 못 잡았어도 두 사람이 그런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 그 두 사람을 불러다가 관리인으로

도와주고 이끌어 주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우면 살고 지혜롭지 못하면은 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는데, 자꾸 적자가 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흑자가 나오도록 해 놔달라. 그런데 그 주인이 욕심이 많아서 자꾸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욕심이 너무 많으면 해가 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와 같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팔자 운명이 따로 있으니까, 어디? 안되고 잘되고, 못살고 잘살고 이런 것도 따로 있지 않아요. 모든 건, 자기가 얼마나 너그럽게 태어났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그럽지 못하게 태어났어도 너그럽게 할 수 있게끔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내 집이 아무리 못났든 잘났든 내 집은 내 집이요. 원두막 같아도 내 집은 내 집이요.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그 주인만 있다면 어떡하든지, 내 집을 또 새로이 짓더라도 크게 잘 짓고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내가 말을 자제하는 못해도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들으시라라고 믿습니다.

지금 부처님 몸이라는 수레, 부처님 수레를

다들 그게 이름이지, 주인공이라는 것도 이름이지, '주인공! 주인공!' 아무리 불러 보세요. 내가 내 뿌리를 믿지 않는데 주인공이 나오나.

그러니 저 나무들을 보세요. 가을이 되면 저절로 잎이 저서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도 그 가지는 내년 봄에 또 잎이 필 것을 알고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아무 상관 없이 그냥 살다가 봄이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피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저런 나무들은 한 해가 가야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한 찰나란 말입니다.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아등바등하면은 오히려 못 믿는 게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래서 자(子)와 부(父)가 상봉을 해야만 이게 견성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이름이지만 말입니다. 견성을 했어도 견성했다고 다. 그것도 아닙니다. 들이내 도리를 알면서 배우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부모 내 자식 아님이 없는데 누구를 낳이라고 믿어내고 섬삼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같이만 생각하라. 내 모습같이 생각하

있다면...' 말을 하려니까 그렇죠. 말을 안 하더라도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없으면 안 하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기는 될 해요? 그러나 계시니까 하죠. 모두. 내가 없으면... 나라고 할 건 없지만, 그래서 그 나 아닌 나를 부처라고 합니다. 주인공을.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면 할 거고 부처님이 안 계시면 못할 거고 그렇지, 그렇게 안달복달할 게 없습니다. 이걸 나 하나가 개별적으로 집을 짓고 살려고 해야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데 다 그렇다는 얘기도. '뭘가 참 아쉽다.' 이러면, 아쉬운 것을 내가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쉽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안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더 잘 알겠죠? 그렇게 알려줘도 이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를 집어서 그냥 내맡겨 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의 심부름꾼이니까 너 알아서 해!' 하고 말이지. 이 보이는 육체로서는 도저히 그럴 기쁨할 수가 없거든요.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기한테 내맡겨서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조절하게끔 만들어 놓고 자기가 뛰는 거예요.

어떤 신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계를 놓고 공장을 하는데 말입니다. 물건을 팔아도 돈도 안 걸고 외상이 되고, 기계는 자꾸 고장이 나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하루는 그냥 고장서 울었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 기계도 살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의 그 몸뚱이나 당신의 몸뚱이나 둘이 아니야. 그것도 다 주인공이 하는 일이고 나는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거니까 주인공에다 맡겨서 다스리게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부터는 고장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돈 벌었다잖아요.

그런데 이치가 이상스럽게도, 귀찮고 골치가 아파서 '아유, 죽으나 사나 그냥 너 알아서 해!' 하고 그냥 그렇게 맡기니까 오히려 풀려 나가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골치가 아프지 않아요, 사는 데?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걸 생각해서라도 다 그냥 맡겨 버리고 사는 거예요. 물 흘러가듯이. 왜 골치 아프게 살아야? 한 생 얼마나 산다고요. 아등바등하고 아무리 그 높은 산을 손톱이 다 까지도 못 올라가려고 애를 써도 이 몸뚱이로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고 은산철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은산철벽을 뚫고도 남음이 있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8년 4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내 육신이 이렇게 허덕허덕 살아나가더라도 내 주장자에서 들이내게 이끌어 가도록 맡겨놓고 자기네 몸을 저 물 흘러가듯이 보라

책임을 지었어요. "너희밖에 믿을 사람이 없네." 하하하... "너희밖에 믿을 사람이 없네"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예 도둑맞지 않게끔 해라." 했거든요. 그날부터 도둑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사람을 시켜서 물증을 좀 잡아라. 이렇게 했으면 그 회사 점점 무슨 꼴이 됩니까. 앙심도 생기고 뭐 별 것 다... 그래서 인과응보가 생기고 원수가 되고, 원수가 졌다고 또 보복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점점 그냥 끝간 데 없이 따라다니는 거죠. 복수가. 그렇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렇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쁘다고 '저놈 잡 나빠. 아주 일도 잘 못하는 데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만두게 해야겠어.' 이런다면은 그거는 자기가 너그럽지 못해 가지고 자기의 업보가 생기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둑질을 해 가도 겁 안 난다. 사람을 죽였다 해도 겁 안 난다 하는 건 뭘 뜻이냐? 한 손바닥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 가도 도둑질한 것뿐만 아니라 그 몇 배를 불러 내놔야 하는 뜻이 서러 있기 때문에 그건 겁나지 않는 거죠. 가져갔어도 스스로 몇 배의 해가 자기한테 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의 양심이 언제나 자기를 살리고

구르게 하는 심봉이 같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같이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묘하고 광대한지, 그 심봉으로 하여금 바뀌어 점프를 해서, 보이지 않는 정신계의 자기가 집을 떠나서 그냥 수십만 개로 응신(應身)이 돼서 나뉘어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생물까지도 부처님께서는 아니 되시는 게 없다. 그러니 전부 자기도, 뭐. 찰나찰나 자기 아니 되는 게 없다. 자기 모습 아님이 없다. 자기 아님이 없다. 그러니 내 부모 남의 부모가 따로 없고, 내 자식 남의 자식이 따로 없고, 내 형제 남의 형제가 따로 없고, 이거는 아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거 했을 때 나라고 할 수가 없으니 '부처는 없다' 하는 데서 '부처가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절에 사람이 있어야만 부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같이 돌아가 행할 수 있다면 부처님이 저렇게 앉아 계셔도 역력하게 살아 계시며 두루 하시죠. 여러분의 몸도 그 뜻을 알면은 저 부처님처럼 두루 하시죠.

내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리는 그 말을 알라는 게 아닙니다. 말의 뜻을 아신다면 즉, 경을 보더라도 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안다면' 하는 말입니다.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여러 말이 필요없고요. 육바라밀이니 팔정도니 뭐,

고 내 마음같이 생각하고, 불쌍함도 나같이만 생각하라. 더 위로 생각하지도 말고 내려서 생각하지도 마라. 부처님도 나와 같이만 생각하라. 그리고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이행한다면 그대로 부처니라.' 하는 겁니다.

불교라는 자체가 머리 깎은 스님들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은 다 불(佛)입니다. 물 안에서 고기들이 사는 것도 교(魚)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것도 교고,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나가는 게 전부 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무(無)의 세계나 유(有)의 세계나 둘이내게 수레 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이 진리가 바로 불교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이는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이는 자기는 심부름꾼으로 생각을 해라. 안 보이는 자기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 있으니까.' 하는 거죠. 못났든 잘났든, 거지든 부자든, 지위가 낮은 높은 간에 자기에게는 반드시 안 보이는 자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억급 공원을 거처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진화시켜서 내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유능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기가.

그래서 나는요, 이 절을 지으면서도, '허! 내가

#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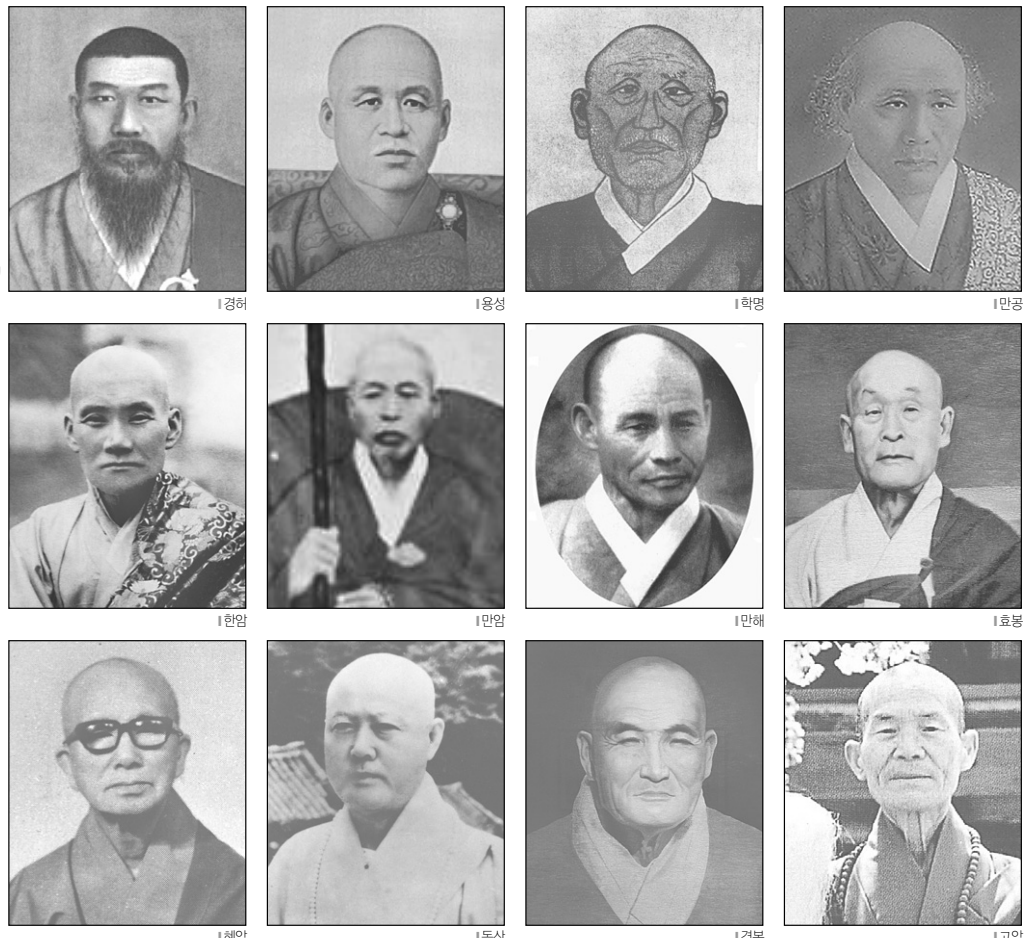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구입문의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5~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343601-04-046766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